노대통령 "하나하나 대응" 등 잇단 강경 발언

'단임제 레임덕' 극복 시도인 듯

YS·DJ 임기말 '반면교사' 삼아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1년여를 남긴 시점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비켜갈 수 없었던 단임제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나름의 처방을 내린 듯 하다.

임기말 측근비리와 각종 게이트 파문에 휩싸였던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달리 정권의 도덕성 시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말 신드롬을 극복해 나갈 자신감이 있는 듯한 태도다.

특히 노 대통령이 "하나하나 대응하겠다"고 '응전' 의지를 밝힌 대목은 5년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권력누수 마저도 적극적인 자세로 방어하겠다는 의중을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마지막 해로 넘어가기 직전인 1996년 12월 26일 새벽 노동법의 국회 기습 강행처리가 권력누수의 서막이었다. 이듬해 초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노동법을 재개정해야 했다. 또 한보 사태가 측근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고 급기야 차남인 현철씨가 구속되면서 국정을 이끌어나갈 동력을 상실했다. 그는 대선 국면에 접어 들어 이회창 후보의 '차별화' 공세에 시달리다 그해 11월 탈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4년차 후반부인 2001년 가을 진승현, 정현준, 이용호 3대 게이트에 휘말렸고 이듬해 초 아들인 홍업, 홍걸씨 형제의 비리 연루로 그해 5월 조기 탈당을 선택했다.

이처럼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말 신드롬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지막 1년을 무기력한 상태로 보냈다.

노 대통령이 최근 보이는 언행은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의 임기말 현상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27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서에서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것이 부동산"이라며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외에 어떤 것도 자신있는 만큼 레임덕을 이유로 추진 중단하는 정책이 없을 것이란 말로도 해석된다.

이와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지역구도와 결합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돼 왔었고 대연정이나 여·야·정 정치협상 제안,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구상은 그런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며 "비록 야당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가 임기말 국정 운영에 관철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임기 5년을 기준으로 권력이 이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시간 또한 노 대통령의 편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계개편의 격랑에 휩싸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이혼 하자" Vs "전대 연기해야"

우리당 신당-사수파 대립 표면화

당 진로 놓고 워크숍서 날선 공방

정계개편 방향을 둘러싼 열린우리당 내부의 세력 갈등이 27일 의원 워크숍을 계기로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면적 충돌 양상은 피했지만 신당파와 사수파의 양대 진영은 '같이 가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관측이다.

◇**당 진로 놓고 대치**=이날 오후 2시를 넘겨 시작된 워크숍은 예상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의 진로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면서 분위기는 사뭇 달려졌다. 정중한 어법이었지만 '진검승부'와 같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논전이 펼쳐졌다.

토론은 사수파의 김형주 의원과 통합파의 양형일, 임종석 의원, 중도파의 오영식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주 의원은 "정치공학적으로 시도하는 통합으로 보여서는 감동을 줄 수 없다"며 "대통합 자체는 찬성하지만 대통합이 창당 초심을 지켜온 당원들의 여망을 담아 새로운 시대정신과 좌표로 토대로 승화돼야 한다"고 '열린우리당 리모델링'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양형일 의원은 "중요한 건 민심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이라며 "정당의 존립근거가 위협받는데 어떻게 승리의 전망을 내놓을 것이냐"며 반박했다. 또 양 의원은 "진정한 합의가 어려우면 '합의이혼'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중도파인 오영식 의원은 "평화개혁세력을 대통합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분열을 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통합신당파에 견제구를 던졌다.

◇ **'전당대회' 놓고 대립**=내년 2월 치러지는 전당대회 성격과 의제, 전대 준비위 구성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당 사수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전대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남 전 의장은 "국회의원만으로 당의 진로를 결정해선 안 되며 당원, 중앙위원까지 포함해 당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2·14 전대를 미루고 3월 중순에 전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파인 임종석 의원은 "신당창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대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며 사수파 압박에 나섰고 양형일 의원도 "전대는 통합신당을 결의하는 전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파 오영식 의원은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결정하고 지도부를 합의추대한 뒤 전권을 위임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홍업 '무안·신안 공천설' 나돌아

민주당 "말도 안되는 소리"

지난 22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25일 치러지는 신안·무안 보궐선거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사진〉 아시아태평양재단 부이사장의 공천설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4·25 재보궐 선거와 관련 당내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펄적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홍업씨의 공천설은 27일 갑작스럽게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이 김홍업 부이사장을 공천하고 열린우리당이 무공천 한다면 소위 여권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홍업 공천설'의 배경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열 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아직까지 당에서 내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 논의를 거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한, "김홍업 공천설은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자가발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건 "내년 화두 雲行雨施"

〈운행우시〉

차기대권 주자인 고건 전 국무총리는 27일 새해 화두로 '운행우시'(雲行雨施)를 꼽았다.

고 전 총리는 이날 김포 해병대 초소를 방문하기 전 측근들에게 "내년에는 시원하게 비가 뿌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운행우시'라는 화두를 골랐다"고 말했다고 캠프의 한 인사가 전했다. 운행우시는 주역에 나오는 문구로 '구름이 움직이니 시원하게 비가 뿌린다'란 뜻이라고 고 총리측은 설명했다.

최근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밀운불우'(密雲不雨·구름만 빽빽하고 비가 내리지 못함)의 답답한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 고 전 총리의 한 측근은 "운행우시라는 문구에는 제세력이 이러저리 이리저리 움직여 정치 변혁이 이뤄진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